

건강한 지구를 위한 미래 선도형
헬스케어 인재 양성의 산실

식품영양학과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ttp://che.khu.ac.kr/?page_id=319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학문

식품영양학과는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과 사회적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사람이 균형 있는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준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및 지속 가능한 지구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준비된 미래 선도형 헬스케어 인재를 양성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학문으로 국가고시를 통해 영양사, 교육자, 연구자, 사업가, 상담사로서의 리더십, 새로운 제품개발, 마케팅/홍보를 위한 창의력, 열정 및 도전정신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자로서의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식품 무역의 자유화 및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한국 음식의 세계화 및 국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구사 능력 및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미래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창의 혁신형 인재 양성 교육목표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식품영양의 과학적 지식을 주도적으로 습득,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경쟁력 있는 식품영양 학문 발전을 주도하는 비판적 지식 탐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전공 트랙 교육과정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진로상담 교수제 및 진로 탐색 세미나 전공기초 수업을 통해 신입생의 적성 및 역량진단합니다. 세 가지 사회진출 트랙에 필요한 학년별 맞춤 역량개발 관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 상담 및 지도하고 학생들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역사회 건강관리 교육 서비스 트랙, 2. 식품영양 산업 Entrepreneur 트랙, 3. 사회문제 해결 전문연구 트랙, 이 세 가지 전공 트랙 교육과정 심화와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식품영양 산업체 및 국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로 학생들의 현장실습, 학부·대학원 연계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식생활, 영양, 건강 관련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학습/독립 심화 학습, 캡스톤 수업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산학협력과정으로 “신제품 개발/식생활·영양교육” 트랙 과정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활동으로 동대문구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및 “건강노화 원스톱 솔루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의 동아리

현재 대한보건협회에서 지원하는 금주가 아닌 착한 음주를 권하는 절주 캠페인 동아리 '경희주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단 활동 및 식품위생 관련 활동을 통해 전공 심화 능력을 배양하는 동아리 'We:生', 식품영양 전공자로서 제품개발 경진대회, 제품개발 아이디어 챌린지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 '제품개발' 등이 있습니다.

급식, 외식, 임상영양 등 다양한 진출

졸업생들은 병원, 학교, 보건소, 단체급식소 등의 영양사,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병원 임상영양사,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보건 산업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보건직 및 행정직 공무원

또는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식품 산업체 연구소 R&D, 마케팅, 홍보, 품질관리 부서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 대학교수, 보건 교육사, 식생활/영양교육 상담사 및 컨설턴트, MD, 창업가, 미디어·언론 분야 등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국가고시 자격증 (영양사) 취득 방법

영양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품영양학과 교과과정에서 제공하는 최소 이수 과목(총 18과목) 및 영양사 현장실습을 포함해서 모두 총 52학점을 전공 과목(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현재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영양사 국가고시 자격증 외에 위생사, 한식 및 양식 조리사, 유통관리사, 식품기사 자격증 등도 같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영양교사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양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교직과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교직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2학년 1학기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직의 적성과 인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직 적성 인성 검사를 시행하고 학과 교수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현재 매년 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층 면접 시에는 성적과 교원자격증 취득에 대한 의지 여부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합니다. 학부 과정에서 교직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 후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전공 진학을 통해 영양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교직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예비 교사 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장 견학, 학술제, 수업 경진대회, 교육 봉사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